

뒷모습

뒷모습서 포착한

삶의 진실

미셀 투르니에 · 글  
에두아르 부바 · 사진



◇어린 아이의 어깨에 내려앉은 긴장, 가감없는 심경의 표출.

비주얼의 시대에서인가. 요즘 서점에는 유난히 사진이나 그림 위주의 책들이 많이 눈에 띈다. 그 책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뒷모습>은 작고한 프랑스의 사진작가 에두아르 부바(1923~1999)의 사진에 프랑스의 소설가 미셀 투르니에(78)가 글을 붙인 사진 에세이다. 사진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 투르니에는 부바의 사진에서 뒷모

철판 앞에서 긴장하는 아이의 어깨 표정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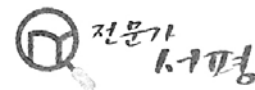
습에 얽힌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54장의 사진에 곁들인 지극히 시적인 투르니에의 산문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뒷모습에 담긴 풍부한 표정에 감탄하게 된다. 그리고 뒷모습이 수만가지 얼굴 표정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투르니에는 이렇게 말한다. "너그럽고 솔직하고 웅기있는 한 사람이 내게 왔다가 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것이 겉모습에 불과했음을 얼마나 여러번 깨달았는가. 돌아선 그의 등이 그의 인색함, 이중성, 비열함을 역력히 말해주고 있었으니!" 그래서 투르니에는 뒤쪽의 진

실을 찾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채소밭을 걷는 사람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다. 화려한 난간과 조각상, 꽃장식이 들러진 분수로 치장된 채소밭. 한때 아름다운 부인과 멋진 신사들이 거닐었을 화단에는 이제 양파와 배추와 감자가 툭툭히 심겨 있다. 그러나 사실 이 사진의 진정한 뒷모습은 "이제 채소밭으로 변해 버린 지체 높으신 분의 정원"이라고 투르니에는 적는다. 이밖에도 철판에 쓰여진 글씨 문제 앞에서 긴장하는 아이의 어깨, 파리 패션쇼 무대 뒤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모델의 뒷모습, 안전한 자세로 앞으로 보는 처녀에게 말을 건네는 청년의 설레임으로 가득찬 등, 아이를 꼭 껴안고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젊은 어머니의 뒷모습, 따스한 햇볕이 내려앉은 창턱에 앉아 장미나무를 바라보는 고양이의

뒷모습. 신을 향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의 등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애뜻하고 때로는 코믹한 사진과 글이 우리로 하여금 사색에 빠지게 한다. 이 책의 번역을 맡은 고려대 불문과 김화영 교수는 "프랑스의 종교서전에서 지난 93년 발견된 이 책을 발견하고 바로 번역에 돌입했다"며 "우리의 눈높이를 올려주는 미적 균형"에 매료됐다고 전한다. 뒤편의 진실을 포착해 살아 움직이는 삶의 앞모습을 기대하게 만드는 균형. 냉소적이지 않은 그 균형 감각이 잘 전해지는 책이다. <현대문학, 7월, 2천원> 이은자 기자 ejs@buddhania.com

사적 사건 등을 정리하여 인문학적 호기심도 충족시켜주는 등 철학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담 없이 읽는 교양서의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확고하고 명료한 철학관이 돋보이는 이 책의 스타일은 마치 화려한 화면으로 구성된 텔레비전의 교양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하다. '참 모습을 보기 위한 노력, 동굴의 비유' '쇼펜하우어가 세상에 남긴 위대한 유산' '우리 시대를 변화시킨 아인슈타인의 혁명, 상대성 이론' 등 재미있는 주제로 이루어진 테마별 글상자를 통해 단순히 철학을 정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대한 철학자의 문제에 독자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책의 매력이다. <시공사, 1,1만8천원> 이은자 기자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들에서 장난감 인형을 짝이내듯 같은 사람들 동시에 수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참으로 가공할 시대를 살고 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학과 최첨단 의로기기는 함부로 죽게 놓아두지 않는다.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게 되었다. 식물인간이 되어도 나이를 먹고 이래저래 사회는 자연히 고령화 추세로 치닫고 있다.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살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죽음에 대한 고통과 회의는 배가되기 마련이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만났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좋을지 해답을 손에 쥐어 줄 것 같은 제목이었다. 책을 펴들었다. 일흔의 나이가 된 저자 알폰스 데켄은 독일 태생의 가톨릭 신부로 미국 포덤대학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를 취득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의 조지나 쥬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일본방송 NHK의 '인간대학'이라는 강좌에 출연하여 '죽음,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강의했는데, 그때 사용된 텍스트가 바로 이 책의 모태가 된 것이다. 본문은 17장으로 나뉘어 있고 '죽음을 응시할 때', '남겨진 가족의 슬픔', '삶을 끝 맺는 방식',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다' 등의 소제목이 붙어 있다. 그러나 방승원교역서 그런지 주제가 깊이 있게 천착해 들어가지 못하고 토막글이 된 듯싶어 아쉽고 미진한감이 없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 책의 핵심은 제 7장 '존엄한 죽음과 안락사'가 아닐까 한다. 환자의 정신이 온전할 때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언서를 작성해 둔다는 것이다. ①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때, 죽는 시간을 미루기 위한 연명조치는 일체 거부한다. ②최대한의 고통완화를 위해 마약을 쓰다가 부작용으로 일찍 죽는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③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을 때 생명 연장 조치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 내용은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안락사 문제가 대두되고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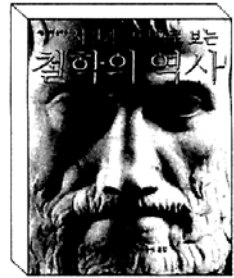
죽음선언서·연령층별 준비교육 필요

"이제 그만..." 했을 때 죽음 왔으면..."

회두처럼 마음을 붙잡는다. '주여! 저마다 자신의 죽음을 죽을 수 있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바라는 죽음을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온전한 정신으로 자신의 존엄을 생각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임종의 어느 때가 도래하면, 나는 떠나려고 하는 시간과 그 끊어지는 시간이 적절히 맞추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이제 그만' 하고 죽음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죽음이 모두에게 찾아와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것이 어긋나는데서 비극이 생긴다. <명량사/수필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독일 태생의 가톨릭 신부이자 일본 생사학의 대부인 알폰스 데켄이 40여년 동안 연구한 삶과 죽음에 대한 안내서이다. 이 책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들을 정리하여,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책 전체를 통해 저자는 존엄한 죽음, 인간다운 죽음을 강조하며, 호스피스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것을 권한다. <공리, 9천원>

▶더 읽기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동서양의 성형, 석학의 생사관을 요약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문학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기술했다. <에이북, 1,2천원> <나 이 드는 기술>=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루아의 신문, '나 이 드는 기술'이란 뒷세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비추게 하는 기술이라고 한다. <나무생각, 7천5백원> <그리고 죽음>=중년 부부의 죽음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다. 성질과 소멸, 삶과 죽음의 의미를 고찰한다. <열린책들, 8천5백원>



2,500년 서양철학 강의노트

는 그러한 우려를 짝 가시게 한다. 2,500년 서양 철학의 역사를 그림책 보듯이 즐겁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역사, 정치학, 경제학 분야의 학위를 받은 철학자인 브라이언 매기가 기존의 독일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입체적 서술방식으로 서양 철학의 역사를 400여 장의 원색 그림과 사진으로 펴낸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하여

현대의 러셀, 비트겐슈타인, 사르트르, 포퍼를 지나 미래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주요 철학자와 사조를 시대순으로 나누어 정리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정치철학, 과학철학, 미학, 종교철학, 도덕철학 등 인간 문화사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철학의 모습 또한 놓치지 않고 있다. 철학자의 사관과 용어, 주요 저서, 관련 인물,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문화적 역

독일 중심 서술방식에서 탈피

사진·그림 400여장... 이해 도와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철학의 역사

철학사 하면 으레 한손으로 들고 도 버거울 정도로 두껍고, 깨알 같은 글씨에 백백한 편집의 재미없는 책쯤으로 여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철학의 역사>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 · 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몰"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 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직통)02-725-1132  
대표)02-737-8881